

지역 소식 통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농지
은행사업 현재 54%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완중)는 추진중인 농지은행사업이 5월 현재 연간예산 281억원중 151억원을 집행해 54%의 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사항으로△공공임대농지매입 87억(48%) △농지매매 21억(69%) △임차임대 7억(99%) △과원규모화 1억5천만원(86%) △경영회생 22억(68%) △농지연금 6억3천만원(45%) △농지이양은퇴직불 10.2ha(44%) △임대수탁 253ha(139%)를 집행했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모든 세대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으로 농가를 지원하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미래세대인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완중 지사장은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는 지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속도 내 경계 분쟁 해소

정읍시가 디지털 지적 전환과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속도를 내며 시민 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8일 시청에서 2025년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시가 5·6지구의 경계 결정 심의와 함께 수성2·4지구·송산1지구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기반의 기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데,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토지의 정형화와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 도로에 접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병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정읍=김대환기자

공공보건의료 강화 유관기관과 맞손

정읍시, 정읍아산병원 · 사회복지관과 협약... 퇴원환자 정착 · 연속적 돌봄체계 구축

정읍시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손잡았다.

시는 지난 28일 정읍사회복지관, 정읍아산병원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연속적인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단기적 의료지원에 그치지 않고 퇴원 이후까지 지원을 이어가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환자 중심 케어플랜 수립 △보건·의료·복지 연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퇴원환자 공동 사례관리 △관련사업 자문·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입원 해소는 물론, 감염병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관일 정읍사회복지관 관장은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퇴원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아산병원 관계자도 “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연계가 진정한 치료의 완성이라 생각한다”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효기간 없이 지속되며, 향후 연계사업 확대와 정책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기초생활수급자 일제 조사 나선다

수급중지가구 3845세대 대상 일제 조사

고창군이 복지 위기가구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2~23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중지가구 3845세대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종합행정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가구별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필요한 서비스를 상담한 뒤 적절한

공적급여 신청을 돕고, 민간지원과의 연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154명과 복지보안관 79명이 참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수시 홍보활동을 펼친다.

기존 수급자들에게는 소득, 부양의무자, 차량 기준 등 수급 요건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급여 중지를 사전

에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정방문을 통해 수급자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농진청, 벼 마르는 썩레질 재배기술 현장 연사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9일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과 공동 주관해 벼 마르는 썩레질 이앙 재배기술 현장 연사회를 부안을 모신다. 품에서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연사회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권재환 농촌진흥청장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해 벼 마르는 썩레질 이앙 재배기술 및 시범사업 설명을 들은 후 권익현 군수와 권재환 청장이 이앙을 시연했다.

또 농업기술에 필요한 자물물꼬, 균평기, 동시 경운·로터리, 드론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농기계 전시를 함

게 진행해 참여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마르는 썩레질 기술이란 논에 흙이 마른 상태에서 흙갈이(로터리)와 균평작업을 한 논에 물을 댄 후 썩레질은 생략하고 벼를 재배하는 기술로 탁수(흐린 물)가 덜 발생해 수질오염을 줄이고 농번기에 집중되는 노동력을 분산하거나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마르는 썩레질은 시기에 따라 단축형과 분산형으로 나뉜다.

단축형은 이앙 5~6일 전 마른 흙갈이와 균평 작업을 하고 이앙 4~5일 전 논에 물을 채운 다음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논 준비 작업을 하는 방법으

로 기존 썩레질 방법보다 작업 기간이 짧아 전체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분산형은 비가 내리지 않는 3~4월에 미리 마른 흙갈이와 균평작업을 마친 뒤 이앙작업을 하는 방법이며 농번기(5~6월)에 필수적으로 했던 논 썩레 작업을 농번기(3~4월)에 진행해 노동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

벼 마르는 썩레질 이앙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신덕농업회사 김용화 농가는 “마르는 썩레질 이앙 재배기술로 논 준비 작업을 시기별로 분산, 농번기에 부족한 농촌 인력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이학수 정읍시장이 수성동 곰두리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는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

이학수 정읍시장, 사전투표 첫날 ‘소중한 한 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이학수 정읍시장이 수성동 곰두리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투표는 대한민국과 정읍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시민 모두가 참여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읍·면·동 이동장회의를 통한 안내는 물론, 주요 거리에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청사와 읍·면·동 청사에는 홍보 배너를 설치했다.

또한 공동주택과 농촌마을 등을 대

상으로 마을방송을 송출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투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오프라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시청 누리집과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 LED 전자 게시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통해 적극 투표 참여 홍보를 진행 중이다.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와 자신의 투표장소는 오는 6월 3일까지 시청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관내 23개 사전투표소를 포함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29일과 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관내 45개 본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고창군은 지난 28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2020년과 2023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025년 안전한국훈련은 풍수해 대비 재난 대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집중호우로 산림지수지 인근의 갈곡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되어 인근 청송마을이 침수되는 상황을 가정해 고창소방서 등 6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중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 발생 현장과의 실시간 소통으로 재난 상황 발생 초기대응부터 복구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갈곡천 범람으로 인해 침수된 청송마을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한 주민 대피와 먹구자 구조, 실종자 수색, 환자 발생 시 이송 체계에 대한 연습 등을 실전과 같이 진행했다.

또한, 산림면 종합복지관에 마련한 임시 대피소에서는 군민들에게 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해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